

FRANCE

완전 자동시스템의 차가움

- 프랑스 해변도시 도빌의 기차역 화장실



116C 디플로마트 역기
홍 하 상

공짜가 아니다. 요금은 3프랑, 우리돈으로 6백원 정도의 돈이다.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바닥이며, 벽은 온통스테인레스로 되어있어 마치 갖혀있는 기분이다. 시스템은 완벽할 지 몰라도 안온함이 없다. 차갑게만 느껴진다...

프랑스 영화『男과 女』의 무대인 도빌에 갔다. 파리의 생 라자레 역에서 기차로 두 시간, 도빌은 대서양 면(面)에 있는 해변으로 유명한 도시. 한 여름철이면 바캉스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는 곳이다. 영화『男과 女』의 주인공은 여기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들은 결국 사랑을 이루었다. 때는 10월 초순, 바닷가에는 이제 남과 여의 주연 배우는 없다. 그들은 이미 30년 전의 흘러간 배우들. 대서양의 흰 파도가 부서지는 이곳에는 점박이 개(犬) 달마시안이 달리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우수수 해변을 휩쓸고 있다. 몹시 거세어서 파카 점퍼를 입었는데도 춥다. 을씨년스러운 해변가를 한참이나 걸었다. 나무 판자로 만든 길인 플라누는 바닷물이 칠석이는 깊은 곳까지 깔려있다. 그 끝에 등대가 있고 등대 끝에 서서보니 멀리 보이는 곳에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이제, 저녁이 온 것인가!’

나그네는 발길을 돌려 도빌 시내로 들어갔다. 강에서 가리비 조개를 가득 싣고 온 배가 어시 장가에 물건을 부리고 있다. 오늘날의 도빌은 여름 한철 바캉스 인파를 받아서 먹고산다. 가을의 도빌은 쓸렁하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이 도시는 제법 붐빈다. 카지노를 하기 위해 파리에서 도박꾼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해변가에는 마치 古城처럼 보이는 5층의 호텔 건물이 있다. 그 5층의 건물 1층에는 루이지앵이라는 유명한 카지노가 있다. 카지노도 있지만 대개는 프랑스돈 1백 프랑(우리돈 2만원) 정도를 가지고 슬롯머신을 즐기는 노인들이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찬 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이 곳 가게에 들른 70세의 할머니는 단골손님인지 기계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카지노에 열중하고 있었다. 기계와 기계사이를 다리가 늘씬한 웨이추레스들이 누비고 다니며 음료수 서비스를 한다. 기계마다 옮겨 다니며 5프랑(천원)짜리 주화를 하나씩 넣어 보는 사람들. 재수가 좋으면 남들이 돈을 잔뜩 잃고 간 기계



에서 1만5천프랑(3백만원)짜리가 터지는 수가 가끔 있다. 카지노에서 나와 시내를 어슬렁거리다 중국집 재신주점(財神酒店)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스프를 하나 시키고 볶음밥을 먹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행인마저도 뜸하다. 이제는 나그네도 서둘러 숙소가 있는 파리로 돌아갈 시간.

도빌 역으로 갔다.

아직 기차 시간까지는 25분이 남았다.

남은 25분, 이 시간에는 뭘 해야 할 것인가? 궁리하는데 짜르륵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다.

기차역 대합실에 하나쯤 있을 만한 화장실이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는다. 역원에게 물어보니 개찰을 하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이다. 좀 얄밟다.

화장실,

즉 일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프랑스는 좀 다르다. 사람이 붐비는 곳일수록 화장실 관리가 철저

하다.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기차 역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 자동 화장실이 있다.

이런.

공짜가 아니다. 요금은 3프랑, 우리 돈으로 6백원 정도이다. 동전을 넣었더니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파리 시내에는 3프랑짜리 간이 화장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곳의 화장실은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썰렁할 정도로 넓다. 네 평쯤 될까? 뜻밖에 변기는 좌변식, 즉 앉아서 일을 보는 화장실이 아니고 재래식(와변기) 시스템이다. 바닥이며, 벽은 온통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다. 사방이 스테인레스라 마치 갇힌 기분이다.

시스템은 완벽할지 몰라도 안온함이 없다.

차갑게만 느껴진다.

그야말로 순전히 일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다.

조금 앉아 있자니 다리가 저리다. 어릴 적에는 모두 재래식 변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벌써 좌변식 변기에 익숙해진 탓이다. 다리가 힘이 들고 공기는 좀 차갑고, 사방은 다 막혀있어 좀 불안





◀ 프랑스 유료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협소한 장소에 많이 사용된다. 설치비용은 대략 2억 정도..)

한 기분이 든다.
불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느낌이다.
화장지는 뜻밖에 누런 재생용지이다. 조그만 거울이 붙은 세면기도 있었는데, 실내 조명이 어두워 거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대충 일을 보고 일어선다.
밖으로 나와 30초쯤 지나자 바닥과 천장에서 물이 요란하게 쏟아지는 소리가 난다.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세척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은 완벽한데, 웬지 인간적이지 않다.
차가운 기계문명만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화장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런던의 워털루 역 화장실과 일본의 제국호텔 화장실, 그리고 홍콩의 페닌슐러 호텔 화장실이었다.

좋은 화장실이란...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상쾌한 공간에, 화장지, 비누, 종이, 타월 등 기본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향수가 뿌려져 있어야 하고, 변기 위에 꽃이 한 송이쯤 꽂혀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춘 화장실은 사실 많지 않다.
그러나 근래에는 좋은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용인 에버랜드의 화장실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화장실이었다.

자... ,
다음 호(號)에도 세계의 화장실을 찾아 떠나 보자.

▼ 항구도시 도발의 나무다리 '플란슈'에 서 있는 필자



홍 하 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 1955년 서울출생
-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 '90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 '98 방송위원회 우수기획상(금강조 1400년의 약속 어떻게 지켰나)
- 작품 : 《명작의 무대》, 《명시기행》, 《세계의 교육, 그 현장을 가다》, 《그때를 아십니까》등 다큐멘터리 270여편
- 저서 : 《일본뒷골목 옛보기》, 《열두굽기모노의 속사정》 등